

난지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발달한 범람원으로서 서울시가 난지도를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3월부터이며, 1980년대 후반들어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악취·먼지 공해는 심각한 상태에 달했다. 서울시내에서는 매년 23만 8천여t의 일반산업폐기물이 발생하는데 43%는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57%는 난지도에 매립돼 왔다. 그러나 1991년 10월 23일 김포쓰레기매립지가 개장되면서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모든 산업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했다.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후 난지도는 수풀이 우거진 녹지로 변했다. 현재 난지도에 자생하는 식물은 37종, 조류는 10종이다.

남조류

육지의 수역, 바다 수역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식물 플랑크톤, 핵도 염록체도 없는 가장 하등한 조류다. 부영양화가 심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마이크로키스티스의 이상발견은 유명하다. 또한 폴미디움, 아나베나는 수돗물 냄새의 원인물질로서 문제가 된다.

내셔널 트러스트

가치 있는 자연 환경이나 역사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 1895년 영국에서 3명의 시민 담화로부터 시작되어 1907년에는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으로 자산취득세를 면제받게 되면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독자적인 단체가 설립되어 활동중이다. 정식 명칭은 <역사적 명승지 및 자연경관지를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이 단체는 개발이나 도시화로부터 자연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국민 기금으로 운영된다.

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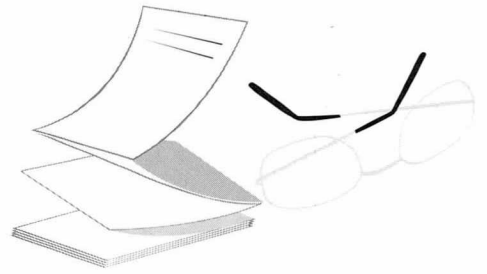
대기중에 0.1-5 미크론 크기의 입자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호흡기관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된다.

납공배

납과 그 화합물에 의한 피해, 납과 그 화합물은 호흡기나 소화기를 매개로 인체에 흡입되어 뼈 속에 축적된다. 납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분진을 흡입하여 빈혈, 요통 등 납중독을 일으키는 일이 종종 있다.

냉각수 오염

냉각수는 물의 온도를 높인다.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의 체온도 올라가고, 체온이 증가하면 호흡률도 증가한다. 우리가 더울때 숨을 헐떡거리는 것과 같은 이치로 호흡은 산소를 몸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호흡을 많이 하려면 더 많은 산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은 일정하므로, 생물들은 산소의 부족을 겪게 되는 것이다. 냉각수를 버릴때는 수온이 25도씨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린 라운드 (Green Round)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자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연료의 사용을 일정비율 의무화한 미국의 1990년 대기정화법과 독일의 포장폐기물의 회수를 위한 예탁금제, 그리고 덴마크의 음료수용기 회수제도가 그 대표적이다. 이러한 제도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수입품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되는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에 의해 허용되는 무역규제이다. 둘째는 몬트리올 의정서나 바젤 협약 등의 개별적 협약에 의한 무역규제이다. 비가입국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이들 협약은 지구차원의 환경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협약을 준수하는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에 체결되는 기후변화 협약은 몇년후에 구속력있는 의정서를 통해 탄산가스 방출억제를 규정하고 비가입국 및 비준수 국가에 대해서는 철강과 같은 화석연료 과다사용 제품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하도록 할 가능성이 많다. 1991년의 미국의회에는 외국에서 미국보다 완화된 환경관리기준을 이용해 저가로 제조되어 수입되는 물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었다. 미국은 돌고래를 희생시키는 어로방식으로 잡은 멕시코산 참치의 수입을 금지시킨 적이 있는데 1991년에 가트는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조치가 자유무역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같은 무역제재는 현재의 가트체제에 의해서는 인정될 수 없지만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가트 GR협상에서 미국 등 선진국이 이러한 규제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결국 자국 외부의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재가 국제규범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무역규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개도국의 지위를 거의 벗어난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유예를 주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기술개발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하는 수 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산업구조를 조정해 자원 소모형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